

제 목	국 문	서울시 일부 보건소에 등록된 폐결핵환자의 약제감수성과 재발기간에 관한 연구		
	영 문	A study on the Drug Resistance and Recurrent Period of Recurrent Pulmonary Tuberculosis Patients, Registered at Seoul City Health Center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박혜숙, 하은희, 위자형, 강지용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Hye Sook Park, Eun Hee Ha, Cha Hyung Wie, Ji Yong K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Ewha Womans University		
분 야	보 건 관 리	발 표 자	박 혜 숙 (전공의)	
발표 형식	구 연	발표 시간	15분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), 연구중 (0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5 년 12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결핵사업과 강력한 항결핵제의 도움으로 결핵환자수가 크게 감소되었으며 특히 9개월 또는 6개월 단기요법으로 90%이상의 균음전율을 보고하고 있다. 그러나 치료가 완료된 후 재발하는 환자가 9HER처방군에서는 5.3%, 2HERZ/4HER처방군에서는 4.3%로 보고된 바 있다. 그러나 1년 이내에 재발하는 환자에 대한 연구는 시행되었으나 1년 이후 재발하는 환자의 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일부 보건소에 등록된 폐결핵 재발환자의 특성과 약제감수성결과, 재발기간, 과거 치료처방등을 비교 분석하여 폐결핵 환자의 재발시 치료처방 결정과 초치료 완료후 추구검사 및 보건교육에 활용하고자 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서울시 일부 보건소(8개 보건소)에 등록된 폐결핵 재발환자 286명의 결핵환자관리카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는 성, 연령, 경제상태, 직업, 체중 등의 일반적 특성과 객담검사, X-선 소견, 과거치료처방, 재발횟수, 재발간격, 약제감수성 결과를 조사하였다. 통계분석은 자료를 전산입력한 후 PC-SAS Package를 사용하여 χ^2-test, t-test를 시행하였으며 치료군에 따른 재발기간의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Kaplan Meier Method를 이용하였고 두군의 재발기간 비교에는 Log-rank analysis를 시행하였다.</p> <p>3. 연구결과</p> <p>1) 일반적인 특성</p> <p>성별분포는 남자 70.4%, 여자 29.6%로서 남자가 더 많았다. 연령별 분포는 남·여 모두 20-29세 연령군에서 각각 23.7%, 30.9%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60세 이상 연령군도 남자 22.1%, 여자 20.0%로 높았다. 체중은 남자 56.0 ± 9.7(kg), 여자 48.0 ± 9.6(kg)으로 전국민 평균체중보다 낮았다.</p>				

서울시 예산자립도(1994)에 의한 경제상태별 분포는 상위지역 23.1%, 중간지역 33.9%, 하위지역 43.0%로 하위지역에서의 재발환자가 많았다. 직업으로는 무직,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판매, 사무직, 단순노무직의 순이었다.

2) 질병상태별 특성

X-선상 소견은 과거치료시에는 경증이 40.0%였으나 현재 재발 시에는 중등증이 65.6%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($p < 0.01$). 세균학적 소견은 과거치료시에는 객담도말검사 음성이 56.4%였으나 현재 재발 시에는 양성이 55.9%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($p < 0.05$).

3) 과거 치료시 처방

단기치료 54.8%, 장기치료 26.9%였으며 치료처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18.3%였다.

4) 약제감수성 검사

과거 X-선 소견 및 과거 객담도말검사와 약제감수성 결과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현재 X-선소견 중등증이상과 객담도말검사 양성에서는 약제내성율이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($p < 0.01$). 처방별 약제내성율은 단기치료 13.6%, 장기치료 17.0%, 치료처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35.5%로 처방을 알지 못하는 군에서의 약제내성율이 유의하게 높았다($p < 0.05$).

5) 재발 기간

6개월이내 재발율은 4.4%, 6개월-1년이내 4.4%, 1년이후 91.3%로 대부분이 1년 이후에 재발하였다. X-선 소견 및 객담도말 검사와 재발기간과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. 치료 처방에 있어서는 장기치료시 96.5 ± 57.4 개월, 단기치료시 41.1 ± 32.1 개월후 재발하였으며 상대위험도는 2.3배로 단기치료일수록 더 짧은기간후에 재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($p < 0.001$).

4. 고 찰

재발환자군의 질병의 특성을 보면 과거 X-선소견 경증, 객담검사 음성에서 현재 중등증이상, 양성으로의 질병악화가 많았으며 현재 중등증일수록, 객담검사 양성일수록 약제내성률이 높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.

약제내성율은 과거처방과는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과거치료 처방을 모르는 경우(병원 및 약국 치료)에서는 내성율이 높게 나와 보건소에서의 보건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.

재발 기간은 1년이후의 재발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퇴록 1년후 추구검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처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단기치료일수록 더 짧은 기간 후에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치료와 장기치료의 사후 관리에 대한 관리방침의 재정립 및 치료효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